国立国会 3. 11. 28 図書館

福音新聞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二九局(29)1511番
編集兼發行人 吳允台
主筆 田榮澤

"統一"과 南北의 現狀

月餘에 걸치어 繼續되어 오는 주네브 會議에서도 벌써 韓國의 統一問題는 悲觀的인 感이 濃厚하게 되었다。그러면、「統一」의 名目下의 南北은 各各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北韓만의 地域에 自由選擧實施」를 當初부터의 方案으로 하는 韓國은 今번의 五二〇 選擧에 있어 依然히 與黨의 優勢를 보여 將來의 對內對外의 政策은 何等의 變化없음을 알 수 있으며、한편 外國軍 直時撤退를 主張하는 北韓에는 內閣까지 소련人이 參加하며、또 未亡人들을 中共軍人과 結婚시키는 運動을 展開하여 永續的인 支配를 꾀한다 하니、果然 統一은 어디로 갈것인가?

依然與黨優勢

韓國總選擧

五月二十日에 實施된 韓國의 總選擧의 結果는 與黨인 自由黨이 二〇三의 議席中 過半數인 百十六을 획득하였다。

候補者 自由黨 二百七十九名(中百名은 非公認)民國黨 七十三名、無所屬 八百名等이었는데、二十一日 밤 十時 中央選擧委員會의 發表에 依하면、

自由黨(與黨) 一一六
國民會(與黨) 一四
民國黨(野黨) 一四
國民黨(同) 三
無所屬、其他 六六

으로 되었다。

이 選擧는 주네브 會議와 同時에 實施되어 注視裡에 開票된 것인데、美國은 李韓國大統領의 從來의 基本方案대로 北韓에서도「韓國과 같은 自由로운 選擧를」하고 主張하는 한편 李大統領에 對하여도 公明한 選擧를 要望하여 권고하였으나、李大統領은 傳하는 바에 依하면 過去 一個月間에 十二回나 有權者에 對하여 聲明을 發하여 改憲支持하는 候補에게 投票하기를 要請하였는데、이것은 憲法改正案等의 重要問題를 앞두고 選擧에 臨하였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改憲案等의 法案의 通過에는 國會에서 三分之二의 實數으로 可決되는 것이므로 容易하지는 않지만 無所屬、其他가 六十六이란 數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今後 方案如何로는 李大統領의 끌고 가는 대로 걸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國連觀察團首席 곤사로·곤트氏는「選擧는 퍽 自由로운 분위기로 시행되었다」하였다。

그리고 本選擧立候補者中 立候補의 辭退者가 八十一名이었다는 것은 本選擧의 複雜性을 말하고 있다。

昇天節

예수의 승천하신 날인 「승천절」은 우리 교회의 특별 명절로는 지키지 아니하지마는 지난 四月 十八日의 부활절에서 四十日만인 五月 二十七日에 해당한다。지난 부활절에서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성화를 본지상에서 계통적으로 소개하여 왔다。예수의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펜테꼬스테」는 오는 六月六日이다。

社說

젊은 이에의 이해

젊은 연대(年代)와 늙은 연대와의 이 제네레이숀의 차이는 그 사고(思考)의 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에서 부닥치고 있으며、느끼고 체험하는 바이다。더구나 재일 우리 한국인 사회에서의 이 두 시대적 차이의 거리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우리만큼 큰 것이 있다。그 이유로서 생각건대、늙은 층이라고 할만한 이들은 구시대(旧時代)의 체험에서 우러난 보수적인 완고성이 있기 때문이요、젊은 층은 미처 삭이지도 못한 새 사대의 호흡을 받아들여 미숙한 점도 얼마간 있기 때문일 것이다。특히 조국을 떠나 우리가 대처하여 살고 있는 이 국제사회의 사회상과 조국의 그것과를 견주어 볼 때、그 서로는 모순되다 싶이 상반(相反)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대적 차이가 있는 두 층이 생각하는 점에는 자연 다름이 생기게 된다。이리하여 한 편에서는 악(悪)으로 여기는 것을 한 편에서는 선(善)으로 여기며、이 쪽에서는 시(是)로 저 쪽에서는 비(非)로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우리에게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이지만 요즈음 신문 지상에 떠들석하게 논의되는 일본의 교육에 과한 두 가지 법령의 시비에 관하여 가지는 견해를 보아도 그러하다。이것을 우리가 깊이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나、다만 한 예로 인용하는 것 뿐이다。이 법령을 찬성하는 의향은 물론 개인적인 사상에도 좌우되지만 대개는 연로한 편이다。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조국의 정세에 비추어 공산 사상의 만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며、반대하는 의향은 대개 젊은 층인데、

그 이유는
육이란、자
을 비판할
기를 수
기계처럼
사람을 만
국민을 만
본 당사자
여겨서일
이 두
다 참이
조국이 처
그 보고
로 좀 완
이들이나、
생활하면서
점 당면하
럼 체득한

이러할 것이다。교
주성을 가지고 사물
수 있는 바탕을
있는 것이 아니고
궤도대로만 움직이는
들어서는 쓸모 있는
를 수 없다 는 일
들의 주장을 옳게
것이다。
가지 견해는 각각
있다 할 수 있다。
하여 있는 위험과
는 귀중한 체험으
고한 생각을 갖는
특히 오래 일본에서
조국의 고난을 직
지 않고 전후 모처
자유의 그 귀중함과 진실성을 믿는 젊은 층의 의견은, 이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특히 정치적 문제에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된다。

새 시대는 젊은이의 시대라고 말한다。그 의미는 젊은이의 이 모험적이면서 이상적인 신념이 없이는 사회나 국가나 이 이상 더 발전함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낡은 시대의 호흡을 하던 연로한 층은 이 귀여운 마음자리를 가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해는 특히 절실하다。교회는 사회에 처하여 있는 것이니만큼 더욱 그러하다。

부활하신 예수 ‥‥저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1:9, 11
—승천하심—

北韓內閣에 소련人 "朝鮮語" 使用禁止
美國防總省發表

美國 國防總省 情報當局은 지난 五月十五日 밤 北韓 政府의 最高幹部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소련人 二十五名의 經歷을 公表하여 다음과 같은 報告書를 發表하였다。

「北韓政府의 最高幹部의 大部分 및 下部執行機關의 主要位置는 北韓에 移民으로 와있는 소련人이 차지하고 있다。官료組織中 이들 소련系人들이 戰略上 重要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政府는 모스코바의 양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되어 있으며,'모스코바에서의 指令은 어떤 일이든지 實行하지 않을 수 없이 되어 있다。이들 소련人 三十六명은 北韓政權을 수립하기 위하여 一九四五年에 派遣되어 온 것이다。또한 北韓人官吏가 소련의 政策에 行動이 어긋남이 없이 감시하기 위함인데, 指令은 一線의 兵士에 이르기까지 로서아語를 使用하여 朝鮮語는 指令으로는 使用이 禁止되어 있다。

이들 要직자들의 指導者는 우즈베키스탄의 共產黨에서 重要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던「허 개」였다。허는 조선노동당(KLP)의 第一書記로 活躍하였다。허는 베리야 소련副首相이 숙청당할 때 自殺하였는데, 그 後도 金日成은 副首相의 地位에 있다。金日成首相은 그들 三十六名과 함께 北韓에 왔는데, 소련陸軍의 將校이며, 板門店休戰會談에서 이름을 날린 南日外相도 소련人, 赤軍將校이다。南日外相은 시베리아에서 出生하여 第二次世界大戰中에는 赤軍의 大尉였으며, 前에 北韓軍參謀總長이었으나 現在는 北韓政權外相의 職에 있다。

方學世 內務部政務情報總[illegible]
署書記
金 烈 勞動黨組織部長、內
朴昌玉 副首相、勞動黨宣傳部長、中央政治委員、
金 表 元內務大官、
金자욱 陸軍政治局長、陸軍大官
金 一 勞動黨中央政治委員
中央最高會議員議[illegible]
相
리·피르크 內務大官
李東建 外務大官
金 장 財務大官
李상조 軍정務局長
朴正愛 勞動黨中央黨委員長
政治委員
朴義琓 副首相、소련人(이완·朴이라고도 하는데、朴義琓은 朝鮮名一
한일무 海軍參謀長、國防部大官
유·게 鑛工部大官
태선수 文化宣傳部大官
왕·양 空軍總司令官
고기만 工業部大官
김순화 都市建設[illegible]
金石範 黨「노동신문」[illegible] 主任、過去[illegible] 板門店會[illegible]
박태준 文化宣傳[illegible]
진경장代[illegible]
김일세 靑年共産[illegible] 로서아語[illegible]
허학헌 士官學校[illegible]
박장선 平양敎育[illegible]
以上의 姓名中 一人은 [illegible] 소련에서 나서 [illegible] 籍을 가지고 [illegible] 共產主義者이며、[illegible] 은「大官」같은 [illegible] 事實上의 實權[illegible] 있다。[illegible]

中共永續支配意圖
未亡人과 婚姻으로

韓國新聞報道 및 公報處의 發表에 의하면 지금 北韓에 주둔하고 있는 中共軍과 北韓의 未亡人 또는 婚期를 잃은 과년한 처녀와의 婚姻을 强要하여 北韓에 永續的으로 머물러 支配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그 方法으로는 과당한 세금을 과하는 갖은 수단이 使用되고 있는데, 이것은 中共에의 예속을 일층 濃厚하게 하며, 全北韓의 中共 영土化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在日韓基에 招請狀
國際基督敎會議

암스텔담에 國際本部가 있고 뉴욕에 美國本部가 있는 國際基督敎會議(ICCC) 第三回 大會를 오는 八月三日로 十二日까지 美國 필라델비아에서 開催하므로 代表者를 派遣하여 參加하기를 要請하는 招請狀이 在日大韓基督敎會에 왔다。同會議는 NCC나 WCC와는 따로이 組織된 國際基督敎會議인데, 그 第一回는 一九四八年 八月十一日 암스텔담(和蘭)에서 열리어 英國의 改革敎會와 침례교회 그 밖의 여러 교회가 참가하였으며, 世界에서 二十九個國 代表가 옵서버로 參加하였고며, 그 第二回는 一九五〇年 八月十六日부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開催되어 八十二 푸로테스탄트 교회 대표 四五〇여명이 참가하였는데, 그 主題는「二十世紀의 宗敎改革」이었다 한다。그리고 이 會議는 美國에서 最大의 信徒를 包攝하고 있는 밥티스트系의 모든 교회와 一部 長老敎會 其他가 적극적으로 參加하고 있다。

高等聖經學校
短期科修業式

在日大韓基督敎總會에서 經營하는「韓國高等聖經學校」第二回 短期科 修業式은 지난 五月十三日 大阪西成敎會에서 거행되었다。同校는 一九五〇年에 設立되어 京都敎會에서 授業中이었으나, 그 후 大阪으로 移轉하여 잠시 休校中에 있었던 것인데, 今春부터 再開하여 우선 短期科만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그 修業式이 거행된 것이다。修業式은 田永福牧師의 司式으로 丁仁壽牧師의 說敎가 있었으며, 金元治牧師의 學事報告와 校長南保羅牧師의 기도가 있었다。短期科 修了生 七名에게는 修業證書를 授與하였다 한다。그리고 同校 在籍生은 二十餘名이라 한다。

第十二回萬國
勉勵會大會

세계의 장로교 계통의 교회 청년으로 조직되어 있는 면려회 만국 대회는 오는 七月 二十四日로 同 二十八日까지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望臺

[illegible] 영국성서 교회 제 百五十年 기념식전을 맞이하여 四月、五月에 걸치어 세계 각국의 성서자들의 한자리에 영국 각지에서는 성대한 기념 제전이 열리었었는데, 이에 뒤이어 세계 각국에서도 기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한다。

△수집된 보고에 의하면 지금 미영불(美英佛)과 소련 지구로 나누어 점령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는 힘있는 성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한다。소위 철의 장막이라는 소련 지구 안에까지 경계선을 넘어「권서인」은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과거에는「권서인」의 활동이 컸다。그 당시에는「권서인」로 들어다니는 [illegible]은 성경 뿐만 아니라、기독교를 통하여 받아 들이는 개명의 반입자이기도 하였다。

△지금 일본에는 백만에 가까운 동포가 살고 있으며、한국 기독교 총회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영포(頒布)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별항(제二면)보도와 같이 일본에서의 우리말 성경은 東京銀座의 일본 성서 협회에서만 팔고 있어 지방에서 오는 이는 성경을 사러 성서 협회에 들르는 이가 많으며、지방에서도 본사에 성경을 구해 보내달라는 편지가 가끔 온다。

△우리 총회는 큰 계획으로 전도 중인데、그저 믿으라고만 말고 이「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며 전하는「권서인」도 두어야 하겠다。

全世界에普及協議

世界聖書公會總會

기보、今年은 英國聖書公會 創立 第百五十週年에 해당하므로 全世界 各國의 聖書公會 當事者들이 參集하였는데、이 記念式典에 앞서 四月二十一日부터 二十五日까지 三年만에 열리는 聖書公會 世界總會가 란던 郊外의 헤이와드·히이스 와 海岸都市인 이스트·본에서 개최되어 聖經을 全世界에 普及시킬 協議를 한 것이다。 그리고 五月三日에는 英國 聖書公會 創立 百五十年祭가 盛大한 祭典으로 개최되었다。 以下는 本紙에의 通信에 의한 그 槪要이다。

翻譯領布方法等

專門家로討議

世界 聖書公會 總會는 四月 二十一日부터 五月一日까지에 開催된 것인데、世界各國의 公會의 總務 및 聖書領布 事業 專門家를 百名은 第一會場인 히이스에서、성경의 번역 개역、製作領布、聽視覺의 三部門으로 나누어 검토되었다。開會式、閉會式、其他 集會의 司會는 놀웨이 교회의 감독이며、世界 聖書公會會長인 벌그라프博士가 하였으며、아침으로는 第一 第二 會場이 合하여 合同 禮拜를 드렸다。

第二會場인 이스트·본市에서는 四月二十五日부터 專門家 以外의 各國敎會代表 當事者들이 會集하여 여러가지 問題에 對한 討議와 講演이 있었다。會議의 主題는 「現代生活과 聖書」、「現代에 있어서의 聖書公會의 使命」、「有望한 地域 및 困難한 地域에서의 活動」、「聖書公會와 世界 基督敎 諸活動과의 協力」等이었다。다음 總會의 날자와 場所에 對하여는 南美 或은 亞細亞에의 招請意見도 있었으나、常務委員會에 一任하기로 決定하였다 한다 會議가 끝난 後 聖찬식으로써 總會를 마치고 一同은 紀念式典에 參加하였다

盛大한英聖書公會

百五十年記念式典

이 記念 祭典은 五月 三、四、五日의 三日에 걸치어 開催된 것인데、첫날은 먼저 各國 代表로 구성된 理事會가 있었으며、五月四日은 各國代表와의 환談等이 있었고 五日에는 웨스터민스터 大會에서 世界各國代表 및 英國國內의 各地方의 聖書公會의 後援會 代表等 約三千名 參集

一年에 二千

日本 領布

우리말 성경은 國內에서뿐만 아니라 海外 各國으로도 委託販賣하여 在外同胞 또는 一般 研究者에게 領布되고 있는데、日本聖書協會(東京都中央區銀座四ノ二)를 通하여 領布된 우리말 성경은 最近 一年間에 約 二千三百八十卷이었다 한다。

同聖書協會에서는 現在 世界 二十餘 國語의 外國語聖經을 取扱하고 있는데、外國語 聖經으로는 英語가 第一位인 一四、四二六卷、우리말이 第二位인 二、三八一卷이며、다음이 차례로 헬라어(三六一)、독일어(三四七)、프랑스어(二六〇)、中國語(一一〇)、로서아어(四一)、마레어(七

희망에 사는 챔편

東京共濟病院에就職한

朱 鎭 光 氏

東京共濟病院(目黑區中目黑二ノ二)에서 「슈센세이」를 찾았다。수많은 「센세이」에 끼어 우리 나라 사람으로는 단 하나인 우리의 「챔편」 朱鎭光 氏는 三十의 고개가 아직도 먼 靑年醫學徒。江原道 出身으로 醫學에 뜻을 두고 서울大學 醫學部에 在學하였다가 渡日、京都府立醫大를 今春에 卒業하고 지난 四ㅁ부터 이 病院에서 當分間 各科로 번갈아 「外來」室에서 聽診器를 들고 있는 中이다 在學時에 두 번 國際學生會議에 나가 世界醫學徒의 提携와 親善을 强調하였으며、「民族、國家、人種、貧富、階級을 超越하여 人間의 生命을 救濟하고 疾病의 苦痛에서 慰安과 希望을 얻게하는 醫學의 「仁道」의 참 정신과 宗敎는 그 本質的인 意味에 있어 同一한 것으로 믿는다」 하는 그의 信念과 熱情으로 지금 미국과 스웨덴의 「醫學生協會」에 加入되어 있어 「英文每日」「日本타임스」等 英字紙에도 소개되고 이름이 알려져 있다。

원래 열정가 타이프라서 在日 우리 醫學徒의 結合으로 祖國에 이바지하자는 「槿仁會」의 會報 편집에 광분中。民族醫學의 向上을 强調하는 氏는 年內로 美國에 留學하여 今後의 研究部門인 「府臟疾患에 關한 研究」를 專攻할 것이라、한다。

文總서도

맞춤법

現行 한글 철자법을 强權的으로 廢棄시키고 七十年前에 번역된 성경에 使用된 철자의 方式으로 還元하라는 李大統領談話에 對하여 지난 四月十九日 한글 학회에서 反對聲明을 發表하였다 함은 기보한 바이나、거기에 뒤이어 文總(全國文化團體總連合會)總會에서도 强硬한 聲明을 發表하여、그 不當性을 指摘하였다 한다。

聲明要旨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現行 철자법의 部分的 修正과 그 簡素化에 대한 연구가 시대적 요청임을 인정하는

禮에 記念式典이 擧行되었다。또 밤에는 同 홀에서 祝賀會가 擧行되었는데、웨스터민스터 合唱隊의 할렐루야 코라스가 있었다 한다。

二百餘卷

日本聖書協會에서 頒布 한우리말 聖經

이태리어(五)、스웨덴어(四)、화란、아이스랜드、페르시아어(各一)로 되어 있다 한다。그리고、去年末 大韓聖書公會火災後는 聖經의 一部는 供給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

臨時西南地方會開催

在日大韓基督敎會西南地方會에서는 지난 五月四日 福岡敎會에서 그 臨時地方會를 열어 다음의 事項을 決定하였다 한다。(1)折尾傳道所에 강문박 神學生 請聘함을 承認。(2)西南地方 夏期修養會를 八月十七、八、九 三日間 福岡県津屋崎에서 開催하기로 決定。(3)主日學校 敎師講習會、廣島開拓傳道等 討議。

聲明發表

뢰기 不當性指摘

바이지만、科學的 方法을 빌려서 專門家들의 長久한 集團的 論議를 通해서 大同을 위하여 小異를 버린「現行 맞춤법」의 普偏化된 正當한 原則을 根底로부터 破괴하고、無法 無體系하며 自然 그대로 放置된 不統一의 철자법이며 낡은 時代의 言語의 表記法인 旧聖經 철자법의 混亂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絕對 反對한다。만일 現行 마춤법에 代置될 原則을 억지로라도 體系化하자면 三個月은 커녕 三十年으로도 오늘만큼 統一되지 않을 것이니、그 상하의 混亂과 空白을 防止하고 充當할 것이 없음을 指摘한다。(以下 省略)

아大統領와싱톤 어머니무덤에 花環

아이젠하워 美大統領夫妻는 지난 九日 어머니날을 당하여 미국 第一代 大統領 조지·워싱톤의 母堂인 메아리·볼·워싱톤의 무덤에 花環을 [illegible]하였다 한다。아大統領은 一九一四年五月八日의 國會의 決議에 따라 五月九日 「어머니」주일을 내니에에 감사의 날」로 지키기를 [illegible]하는 布告를 지난 五月二十九日에 發布한 것이다。(모레대라스바그發USIS)

原子物理學者가 牧師로 就任

미국 原子物理學者의 한 사람인 윌리암·G·포라드 博士는 미국 테네시州 오크릿지의 감독교회 목사로 취임하였다 한다。그는 처음 안수를 받은、이 성스테반 교회에서 代理목사로서 목회를 할 것인데、이제까지 原子物理 연구하는 中에도 同敎會 건설에 노력하였다고 한다。

文總總會 任員改選

지난 四月二十七日에 開催된 文總(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第七回 總會에서는 任員을 改選하였는데、從來의 委員長制를 廢지하고 最高委員으로 다음의 諸氏를 選出하였다。

最高委員、徐恒錫、李軒求、都相鳳、毛允淑、吳尙源、審議最高委員、吳宗植、金광섭 諸氏

△中央委員

(文學)[illegible] 金容浩 조芝薰 具常 [illegible]貞희
(美術)金仁承 朴得순 尹孝重 李鳳商 李순石
(音樂)金世형 金仁洙 李흥烈 朴泰헌 尹伊桑
(舞踊)金白峰 宋范 鄭舞燕
(映画)金寛洙 朴啓주 李奉來
(舞臺)朴珍 朴九 金石民 李貞순 崔一
(한글)崔鉉培 柳喬瑛 金亨규
(言論)成仁基 李漢용 민觀정
(寫協)林應植
(少年聯盟)丁洪敎
文部委員十七名

聖經歷史의 記錄映畫製作

미국 성서공회에서는 第一世紀 때에 十二사도가 기구한 그리스도의 교훈에서부터 시작한 성경의 역사의 記錄映畫를 製作、오는 六月一日부터 敎會에 上映하게 되었다고 發表하였다。同聖書公會總事長 에릭·M·노스氏의 감독으로 된 이 映畫에는 二百五十여名의 배우가 出演하였으며 많은 學者들의 協力과 民間圖書館、뉴욕公立圖書館、메트로폴리탄美術館、크로이스터博物館 및 一部 海外 圖書館의 資料도 使用되었다 한다。(뉴욕發USIS)

어머니 주일에 표창받은어머니들

(전호 본도) 京都교회에서는 지난 五月九日 어머니 주일에 자제 五인 이상 교회에 나오게 한 어머니를 표창하였는데、아래는 그 기념사진이다。

복음新聞의使命을 나는이렇게生覺한다

제임스·이·피시어박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共產主義者들이 宣傳이나 破壞的運動組織이 極히 强하므로、新聞이나 敎會機關이 그 勢力과 도저히 對抗할 수는 없으리라고 믿고 있다。敎會의 指導者들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놀라지않을 수 없다。基督敎運動의 全歷史를 살펴 보아서 어떤 어려운 事業을 두려워한 일이 있었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그 힘이 이 世上의 온갖 罪惡을 굴복시킴에 不足함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일찌기 基督敎의 信仰表白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우리 基督敎는 信仰위에 서 있다。다시 말하면 泰山도 움직일 수 있는 信仰 위에 서 있는 것이다。얼마나 많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信仰의 부족을 책망하셨던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行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그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나、우리의 할 일은 하여야 할 것이다。하나님은 이 地上에서 우리 人間의 지혜와 모든 機構를 使用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아시지 못하실 것이다。일찌기、美國에는 奴隷가 범람하였으나、수많은 基督敎人은 이를 廢止하기 위하여 기도함과 同時에 一致團結하였던 것이다。南北戰爭以前 約 五十年間 많은 基督敎 說敎者및 基督敎的 作家들은 美國에서 이 奴隷制度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힘쓰고 기도했던 것이다。그리다가 드디어 四年동안이란 피비린내 나는 奴隷制度廢止를 위한 戰爭을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奴隷制度는 廢止되었다。

萬一 基督敎主義 新聞이 冷戰에 加담하여 나간다면 이것은 美國과 소련間의 보다 더 큰 緊張을 가져오고 鬪爭을 북돋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나、나는 그렇게 말하는 이에게 묻고 싶다。善과 惡이 싸우고 있을 때、惡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當然한 일이 아닐까? 더구나 美國은 그 過去의 歷史가 外國을 侵略하거나 한 일이 없고 基督敎 福音을 傳하고 基督敎事業을 外國에까지 推進시켰다。過去 七十年間 美國은 韓國에서 學校、病院、孤兒院、大學、其他 여러가지 宗敎的 社會的 諸機關을 設立하기 위하여 數百萬弗을 使用하였다。過去 四年間은 韓國의 敎會、基督敎徒들을 破壞、학살하는 共產軍의 侵略을 防止하기 위하여 數千의 兵士들이 國連軍의 一員으로 貴重한 生命을 버렸으며、또 韓國의 再建을 위하여 數十萬弗을 이미 投入하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數千名의 宣敎師들이 美國或은 民主諸國에서 獻身的으로 基督敎의 祝福이 韓國人에게 있도록 努力하고 있다。美兵士들의 흘린 피 過去 日本의 單國主義的 壓迫에서 韓國을 解放시켰으며、防衛하고 있다。그러나、共產主義의 國家는 韓國動亂 最初의 三個月間 韓國의 모든 敎會및 그 機關을 破壞하고 良民을 학殺하였다。新聞特히 基督敎의 正義를 부르짖는 基督敎主義의 新聞은 現世의 最大의 罪惡性 곧 共產主義에 對하여 어찌 榜觀하고 있을 수 있을까? 共產主義者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한 動요를 주고 있으니、곧 暗黑과 光明의 사이에 있어 그 中間에 서야 한다는 理論을 심지어는 敎會 指導者들까지 主張하게 하는 것이다。이것은 우리 힘을 損失하게 하여 그 集中을 妨害하는데 成功된 宣傳이라고 볼 수가 있다。

韓國人은 몸소 쓰라린 共產主義에 對한 體驗을 하고 있는 것이며、共產主義가 무엇인가도 잘 알고 있다。또 韓國이 오늘날 共產主義 때문에 이와 같은 破壞의 狀態에 빠져 있는 것도 明白한 일임에도 구하고 日本에 있는 韓國人의 過半數 以上은 共產主義路線을 따르고 있으며、共產主義의 음모의 道具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어것은 日本에 있는 韓國人은 分明히 共產主義의 侵略을 體驗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直接 體驗한 그 사람들 보다는 쉽사리 宣傳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事實을 證明하는 것이다。또한 그

들을 日本에 있는 韓國人 共產主義者들은 方今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을 바야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들 分子들에게 [illegible]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속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우처 좀 任務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 바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共產主義의 弱點을 指摘함과 同時에 民主主義의 弱點은 왜 들처내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품고 있을는지 모르나、거기에 對한 대답은 僞善하다。民主主義에 缺點 또는 缺陷이 있겠지마는 그것은 政治、經濟 制度的 問題이요、基督敎 倫理 宗敎的으로 보아 간섭할 何等의 必要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民主主義는 가장 密接하게 基督敎的 社會秩序에 接近해 있은 基督敎 것이며、人間이 만든 政治制度로는 最上의 制度라고 나는 믿는다。民主主義에 缺陷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우리는 共產主義가 人間의 自由의 最大의 위협임을 [illegible]하고 人類의 自由를 지키기 위하여 民主主義에 對한 [illegible] 호한 信念을 가지고 民主主義를 育成하여 [illegible] 하여 共產主義의 [illegible] 알게 해야 [illegible] 리들의 同志들이 [illegible] 共產主義의 宣傳에 속지 않도록 努力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 行하여지고 있는 資本主義的 企業은 美國이나 또는 民主諸國에서는 數百年前에 갈 마르크스가 予言하던 時代와는 달라졌으며 그 性格도 달라졌다。오히려 全體主義的 統制企業制度보다 民主主義的 [illegible] 念을 基礎로 民主主義 大衆의 自由를 保障하여 [illegible] 의 富를 [illegible] 國民所得을 增進시키고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있다고 믿는 바이다。

우리는 단지 北朝鮮을 [illegible] 義者가 [illegible] 人間의 自由에 [illegible] 을 하고 있는가 [illegible] 있으며、人間의 [illegible] 何히 [illegible] 보는 바이다。[illegible] 을 처다 [illegible] 들처내어 [illegible] 人權을 保護해야 [illegible] 다。基督敎의 使命 [illegible] 善、美를 지키고 [illegible] 에 있음을 [illegible] 발전시킴 [illegible] 말로 있을진대、이 態度야 말로 絶對的인 것이 任務를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

„알마(עַלְמָה)" 解釋에 關한 考察

金瓊燦

그러면 이사야는 如何한 理由로 "알마—"라는 말을 使用했을까. 이것을 生覺해 보자.

이 알마—는, 結局은 處女가 아니면 定婚한 女子인가, 그렇지 않으면 結婚한 女子인가 이 셋 中의 하나이다.

萬一 結婚한 女子라고 한다면 징조를 보리라 하는 말은 無意味한 말이 되고 말고, 따라서 結婚한 女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異狀하여 징조라고 할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 "알마—"는 未婚者를 意味한 것이 確實하며 따라서 未婚女子로 서 그 母體가 男子와 아무 關係가 없다고 하는 狀態를 나타낼 수 있는 唯一한 말이란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 "알마—"라는 말은 旧約聖經에서 結婚한 女子를 意味한 것으로 使用된 곳이 없다.

다음은 "알마—"가 童貞女가 아니라는 反對說을 생각해 보자.

(가) Bernhard Duhm 氏는 이사야 7章14節을 시리야와 이스라엘에 對한 予言이라고 하여 "알마—"는 어떤 特殊한 女子도 아니고, 아하스의 妻도 아니고, 이사야의 맘속에 있었던 어떤 女子도 아니고, 다만 어느 女子든지 아이를 낳을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짖는 女子가 그 女子 즉 "하알마—(הָעַלְמָה)"라고 하였다. 그리고 Duhm氏는 이사야 7章14節부터 17節까지를 文法上으로 보아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出生할때에 생기는 어떤 事件을 가리켜서 징조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萬一 Duhm氏의 說이 옳다면, 이사야는 如何한 理由로 "알마—"라는 말을 使用했는지

美國改譯聖經(RSV)에서 이 "알마—"를 젊은 女子(Young Woman)라고 翻譯된 後로 이 問題가 새삼스럽게 또 다시 問題視 되었다. RSV를 翻譯한 32人學者들의 議長이었던 Dr. L. A. Weigle氏는 如何한 理由로 젊은 女子라고 翻譯하였느냐 하는 質問에 다음과 같이 對答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그저 傳說에 그런 말이 있으니, 그렇게 翻譯되었다고"하였다. 이와 같이 젊은 女子라고 한 그 根據는 確實하지 못하고 傳說을 土台로 翻譯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끝으로 70人譯에 關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한다.

金敎授는 말하기를, 이사야書는 히브리語이고 新約은 헬라語인데 히브리語 "알마—"가 헬라語로 處女에게 만 局限한 "παρθένος(파르세노스)"라는 말로 翻譯된 것은 70人譯으로 부터 始作되어, 마태는 1章20節에 引用할 때에 이 70人譯을 使用했다고 하였다. 金敎授의 意見대로 본다면, 마태는, 그리스도가 童貞女誕生이 아닌데, 70人譯에 "파르세노스"라고 翻譯되었으니, 그저 그대로 無批判的으로 이사야予言成就라고 믿고 再記錄한 것 뿐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그리고 70人譯도 이사야는 童貞女誕生을 予言한 것이 아닌데, "파르세노스"라고 翻譯했으니, 그것도 誤譯이 되고 말것이다. 우리들이 이미 周知한바와 같이 70人譯은 紀元前270年前에 70人의 學者들이 모여서 翻譯한 것이니니, 그 當時에 예수誕生과 그리스도의 神性 否認說等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 그리고 그런 否認說에 對向하기 위하여 "알마

講壇

그리스도의 승천

田永福 牧師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를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행一장九절」

예수교가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전하여 온 복음의 제일 중심은 예수·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이다。예수가 오늘날도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구원하신다는 예수교의 신앙은 다만 예수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예수가 지금 살아 계시지 않고 이천년 전에 있던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예수교도 불교나 유도에 흡사한 성현의 가르친 교훈에 지나지 못한 소위 종교 밖에 되지 못한다。그러나、예수교는 유교와 같은 성현의 가르친 교훈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라、살아 계시는 예수·그리스도와 대면하고 사괴고 늘 동거동행하며、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 자체인 것이다。배우는 교가 아니라、기도하는 생활이며、깨닫는 철학이 아니라、믿고 의지하는 생활이다。이와 같은 예수교의 생명적 중심신앙은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의 가장 구체적 근거로、예수가 죽은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시고 사십일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백여 형제들 보는、데서、올리어 가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다。그저 죽은 후 다시 살아 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예수교의 여부는 예수의 승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예수의 승천이 거짓말이라 하면、예수의 부활도 거짓말이고、예수교라는 종교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 된다。

예수의 승천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지식은 큰 의심을 가지게 된다。예수가 승천했다고 하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셨는가? 어느 별세계에 승천하셨는가?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아무것도 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성경에「하늘」이라고 기록한 헬라어「우-라너쓰 οὐρανός」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공기가 있는 하늘과 별세계일 뿐만 아니라、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말한 말도 된다。동양에서 하늘을 도덕적으로 말하여、「천벌」이니「하늘이 용서치 않는다」니、하듯이 헬라원어의 하늘은 그 당시 유대、헬라의 관념으로써 눈으로 보이는 태양계、우주 별의 세계를「첫때 하늘」이라고 하며、눈으로 보이지 않으나、별세계 위에 무한한 공간의 세계가 있다고 하여、「둘때 하늘」이라 하며、그 외에 시간과 공간의 한정이 없는 신령한 정신적 세계를「세때 하늘」이라고 말한 그 뜻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고후十二장二절)예수가 승천하셨다는 그 하늘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있는 어떤 자리를 잡은「하늘」이 아니라、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하늘에 그 자취를 숨기신 것이다。그러므로、구름이 있는 그 하늘에 올라 가셨지마는 비행기가 올라 가듯이 어디까지든지 높고 높은 하늘로 그대로 올라 가신 것이 아니라、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에 몸을 숨기신 것을 신령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다。그러므로、구태여 높은 하늘에 올라가야만 할 것이 아니지만、미개한 그 시대에서는 갑자기 예수의 자취가 연기와 같이 사라져 만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신것과 같이 눅二十四장 三十一절)하나님 앞으로 가신 줄을 모를 것이므로、저들이 보는데서 하늘을 올라 가시고 구름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그 자취를 옮기신 것이다。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 가신 예수를 순교 당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로서 본 것이며 (행七장五十五절)다메섹으로 간 바울이 음성을 발하신 예수로서 만난 것이다。예수가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이와 같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며、예수교의 생명적 신조이다。예수의 승천은 예수가 지금도 살아 계시고、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는 놀라운

理由도 "알마—"라는 말을 使用했는지 그 理由가 不明白하다. 그리고 그 當時의 歷史的 背景과 事情을 보아서 解釋은 좀 無理하다고 생각한다.

(나) Justin Martyr時代 Trypho 라는 사람은 이 予言을 헤제기야王에게 關係시키어 "알마—"는 普通 結婚한 女子를 말한 것이라고 하여 童貞女誕生을 否認하였다.

이와 같이 "알마—"라는 말이 젊은 女子라고 하는 意味를 가지게 된 것은 結局은 어디로 부터 왔는가 하면, 特히 그리스도의 神性을 否認하는 유대人들과 그리스도의 童貞女誕生을 否定하는 者에게서 온 것이면, 時代로 말하면 主後인 것을 알수가 있다. 그러므로 主前 즉 紀元前에는 이와 같은 思想은 없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最近에 와서는 特히 ... 위하여 "알마—"는 事實 童貞女를 意味하는 말이 아닌데, 이사야予言成就를 擁護하기 위하여 意識的으로 "파르세노스"라고 翻譯했다고는 볼수 없다. 70人의 學者들은 그저 原文 히브리語를 忠實하게 希臘語로 翻譯한 것 뿐이라고 믿는 바이다. 表現하는 말 形式은 다르나, 그 뜻은 같은 뜻을 나타내야 正確한 翻譯이라고 할수 있는것은 筆者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것이다.

以上으로 簡單하게 "알마—" 解釋에 關한 考察을 마치려 하나, 新旧約聖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信仰生活을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兄弟姉妹諸位여! 이 問題에 關하여 앞으로 많은 硏究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

(1954.5.5)

사실을 알게 하는 유일의 증거다。이 사실을 토대로 삼아, 복아 오는 시대시대에 예수를 믿는 신도들이 용사와 같이 강하게 살아 나가는 것이다。세계의 모든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를 모시고 있다。

特別 傳道 日誌 2

특별 전도 일지 2 서남의 교정 (西南 敎程)

○4月13日 14日 福岡市

福岡에서도 비교적 많이 모였으나 새로운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직들이 견실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아 과거 5년 전에 비하여 교회는 착착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밤 집회에는 새로 부임해 온 주일대표부 福岡사무소 유진용 영사도 참석하였었는데,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 4月 15~18日 熊本市

15日 오후에 熊本에 도착하였다.

熊本라면 전에는 교회도 없던 곳인데, 새로 예배당까지 신축하여 사진과 같은 양옥식으로 된 말쑥한 예배당이 시라가와(白川) 언덕에 당실히 솟아 있음은 인간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겠지만, 이 地늘 개척하신 안 목사의 수고가 견실된 것이라 하겠다.

이 교회는 熊本 있는 동포들은 물론 일본인에게까지도 우리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고 있는데, 이 번의 특별 전도는 한층 더 이 곳의 동포들의 이목을 새롭게 했을 것이다.

본래의 예정은 가고시마(鹿児島)까지였으나, 강사의 형편과 비용도 문제되어 가고시마에는 부득이 이 번 기회에는 중지하고 熊本에서 나흘 동안이나 계속하게 되었다. 가는 곳마다 영화 상영에 대하여는 큰 환영과 기대를 보였으며 여기서는 세 번이나 상영하게 되었는데 더 흥미를 끌면서 효과 있는 필림의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16日 주일의 부활절을 이 곳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18日 가고시마에 가지 못하는 섭섭한 마음을 품은 채 熊本를 떠났다.

사진은(1)新築된 熊本敎會堂(2)同敎友

共產主義란 무엇인가

—共産主義에 對한 基督敎의 對答—

三 이상 사회

그러면, 혁명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때는 해방 받은 푸로레타리아트는 모든 사람의 해방자가 될 것이다。그들을 자본주의 시대에서 발달된 과학과 산업의 잇점(利點)을 계승하여 전인류에 미치도록 봉사할 것이다。고 마르크스는 말하였다。그 때는 모든 사람은 같은 계급에 속하므로 착취도 없어지며 불의의 근원이 되는 사유 재산 제도가 없어지므로 악(悪)이 없어질 것이다。이 새로운 사회는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참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그 때에는「각자의 능력에 의하여」가 아니고「각자의 필요에 의하여」가 될 것이다。그리고 역사는 정점에 달하여 안정될 것이며, 투쟁도 없고「正」「反」「合」도 없을 것이다。그것은 서로 투쟁하는 계급이 없기 때문인데, 이 계급 없는 공산주의의 사회가 최후의「合」이 된다고 마르크스는 말하였는데, 그의 제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때는 데모크라시 자체가 자본주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 자본주의의 착취라는 말할수 없는 공포와 야만성은 해방되었다는 사실

것이다。그리하여 사람들은 교과서에 적혀 있는 수천년간 말해 온 사회생활의 초보의 규칙에 점점 익숙해 질 것이다。그들은 이러한 규칙을 폭력이나 강제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키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마르크스의 예언은 그의 다른 모든 교설 중에서 가장 낙천적인 것의 하나이다。왜냐하면、그것은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이상 나면서부터의 고유의 죄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다。

四 권력 운농

레닝은 一九一七年 로서아 혁명을 지도하여 모든 나라에 앞서 지상권(至上權)을 부린 최초의 공산주의자였다。그는 유능한 전술가이며、새로운 상태에 적합할 만한 공산주의의 이론을 발전시켰다。그는 공산당을 가장 엄격한 규률을 가진、긴밀히 결합된 조직체로 만들었다。전세계를 통하여 공산당은 중앙에서 오는 명령에 즉시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복종해야 하는 단일의 조직으로 하였다。

모스코바가 각국의 공산당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나치스와 소베트와의 조약 제결할 때에 나타났다。一九三九年 이 조약이 성명되었을 때、그때까지 여러 해 동안 파시즘에 대하여 반대하여 통일 전선을 형성해 있던 각국의 공산당은 갑자기 파시즘을 옹호하는 태도로 변한 것이다。그리다가 돌연히 一九四一年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할 때、하루 동안에 전세계의 공산당은 그 태도와 입장을 뒤집혔던 것이다。그들은 평화운동에서 떠나 일제히 전쟁 지지자가 된 것이다。대전 후에도 마찬가지의

의 공산당 내부에는 지도권에 대한 불일치(不一致)가 있을 것이나、모스코바의 신뢰하는 편이 승리하게 된다。인도의 공산당에서도 간부 사이에 대립이 있었으나、그 반대파는 쉽사리 그 지도권을 차지하지 못하였다。그러나 그 지도권을 잡은 파에 대한 코민폴름의 비판이 있을 때 끝 변경되었다。

가끔 공산주의자는 비(非)공산주의자의 조직 가운데서 활약하기 위하여 파견되어、혼란을 일으키는 꾀를 가지고 있다。그들은 우익(右翼)보다도 사회주의자나 민주주의자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그들은 중간로선에 있는 사람들이 우익에서「빨강이」로 보이도록 혼란과 교묘한 정책을 쓰고 있다。혼란시키는 또 한 가지의 수단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사회적 질서나 사회보장까지도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비밀 세포가 있다。이 세포는 연구 그루프로써 발족된다。표면적으로는 가장 정당한 일을 내걸고 토의하는 것인데、이것은 세포의 멤버에 비밀의 분위기와 모략(謀略)의 방법에 익숙하게 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이리하여 세포의 멤버의 내부 이외에는 결코 정직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훈련되어 점점 진리와 정의의 감각을 잃고 말게 한다

그리하여 이 세포에는 상부의 당원에 대한 복종의 관념을 깊게 하여、명확히 제시된 토론된 원칙에 대한 충성보다도 당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주장한다。처음에는 적어도 세포의 참 목적은 공산주의자를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그 세포가 공산당에 의하여 지도되는지도 모르기도 한다。멤버의 개인의 생활과 사상 모든것을 완전히 세포에 의존하게 한다

(戱曲)

復活 (6)

朱泰益 作

용국 워 또 딴 일을 하지、일할게 없을라구 나는 세상에 이련 무서운게 없어졌어。아 그 산중에서 그때들을 따라다니던걸 생각하면 못할게 없어。그리구 난 지금 예수를 믿어 : : :

순남 그렇지만 아버질 여기저기서 자꾸 빨갱이라구 하면 어떡해요。

용국 괜찮아、하나님이 아시잖니、하나님이 설마 날 빨갱이로 몰가 뵈서 염녀 없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야 순 순남아 너 어서 자라。내일 좀 일직 일어나 아침에 공부하구。

순남 네 어머니 저 아침에 일직이 깨워 워요 (방안으로 들어간다)

용국 형국인 어딜 나간지가 오랬오?

순남엄마 네─일마전까지 있었는데 : : : 그런데 어보 그 아재가 큰일 났어요 오늘두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심상칠 않어요。

용국 후─(한숨) 왜 그럴가

순남엄마 요즘은 미칠것 같에요。그 헤숙이 때문이죠。헤숙이두 아젤 생각하긴 하는 모양인데 : : :

용국 아주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구 용국이와 결혼을 할 생각은 없나?

순남엄마 그게 안그럴 모양예요。

음식점주인 등장。순남엄마 방으로 들어간다。

음식점주인 (드러오면서) 저 말씀 좀 묻습니다。이 댁에 저 박형국씨라구 상이군이 계시잖습니까?

용국 네 있읍니다。

음식점주인 네 있읍지오? (혼잣말) 아 참 찾기 어렵다 하마터면 또 못찾구 그냥 갈뻔했지 (인사하며) 첨뵙겠읍니다 전 저 요앞 남포동서 「남원옥」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올시다。네 다름 아니라 형국씨와 회계할게 좀 있어서요。네 그래서 왔읍니다。실례올습니다만 댁은 뉘신지오? 형국씬 지금 안 계신가요。

용국 지금 어딜 좀 나갔읍니다。

음식점주인 그렀읍니까。그럼 실례지오。아 참 댁이 참 찾기 어렵습니다 (마루에 앉으며) 형 허국씨가 댁의

용국 네 제 동생입니다。

음식점주인 아 그렀읍니까 네 참 잘 뵀읍니다。네 참 댁을 못찾아 아이구 무척 애를 먹읍니다。헤에 : 미안합니다만 요걸 좀 회계해 주서야겠읍니다。에ー또 (통장을 끄내다) 에ー또 가만있자 삼백오십환 이백 사백팔십환 ー또 환 구 ー 오천 일천칠백팔십환이 올 시다。마침 백씨께서 댁에 가서 요형입니다 네 참말루 두무 찾 가 오늘이야 댁을 찾 왔읍니다。요걸 좀 회계해 주십시요。

용국 저 마안하지만 : : :

음식점주인 (말이 멜어지기 전에) 아 올시다。오늘은 꼭 어떻게 해 주서야겠읍니다。이제 워낙 외상을 놓는데 아납니다。베。상이군인양반이구 보아하니 점잖으셔서 드린겁지요。네 어떻게 해서라두 꼭 좀 부탁하겠읍니다。

용국 그게 글세 지금 솔직한 말슴루 한푼두 없읍니다。며칠 있으면 제가 : : :。

음식점주인 아아니 그러지 마십시오。이런 장사라는게 : : : :

· 말하는 중에 혜숙 등장。역시 전모양으로 번들거리는 몸차림이다。용국에게 이사。

혜숙 점주인 (혜숙을 보고 음식 반기며) 아、이 아가씨가 오시는구먼 뵀어 쥔님 사실 형국씨가 그동안 네 그렀읍니다。잡수신걸루 따지면 요거만이 아니올시다。저 아가씨가 늘 셈을 하군 했읍지요 요거만큼은 저 아가씨가 모르는 겁니다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와서 잡수신거죠 그래두 드 아가씨랑 믿구서 드리거 아닙니다。꼭 좀 부탁합니다。

혜숙 아이 여보세요 먹은 이한테 말으시죠 웨 : :

음식점주인 아ー참 (답답한 듯이) 볼수가 있어야죠 이걸 회계해 주셔야 제가 도라가겠읍니다。네 바른 미천으로 하는 장사에 외상이 탈을 넘겨서야 쓰겠읍니까요 어떻게 좀 제사정을 뵈 주십시오 이와요 이놈 장사두 못해먹겠읍니다。

용국 글세 : : 이거참 딱하군! 제가 갚아드리다구 했으면 꼭 갚아드립니다。몇일만 기달 점 러워요。

음식점주인 아니올시다。어떻게 좀ー

혜숙 아 글세 없는걸 어떻게 해요。

음식점주인 아아 : : 그러시지말구 : : :

형국 등장 문안에 드러서서 음식점주인을 노려본다。

음식점주인 (형국이 들어온걸 아직 모르고) 장사하는 사람 사정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않습니까 네 댁을 찾누라구 제가 아주 큰욕을 뵀읍니다 요 이기 벌서 한달이 지난겁니다

형국 여보!

음식점주인 (놀라며) 아 여기 오시는구먼 (기가 꺾인다)

형국 (위압적으로) 없다면 그만이지 없는걸 어떻게 내란말요。

음식점주인 네ー : :。

형국 어서 가요。후에 생김 줄테니 : :。

음식점주인 : : : (머뭇거리고 섰다。)

형국 어서 가요! (고함친다)

음식점주인 네 헤 : : (나간다)

혜숙 (형국의 태도에 반발하여 나가는 음식점주인에게) 여보。

음식점주인 네 : :

혜숙 이리 드러와요 (핸드빽에서 돈을 끄낸다 천환짜리를 먼저주고 남어지를 세어서 준다)

음식점주인 아이 참 고맙습니다。아가씨! 참 마음이 좋으시거든。(황급히 나가버린다)

형국 (비꼬아) 흥、돈있는 자세를 마음껏 하는군

용국 형국아 너는 네 태도가 좋다구 생각하니?

형국 (발작적으로) 좋아요

總選擧의 結果

主筆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세번째 총선거가 실시되어 맹렬한 선거운동과 경쟁、소위 추록전(追鹿戰)이 버러졌다가 지난 五月二十日에 마침내 선거는 끝났다。

자유당과 민주국민당간의 마찰과 자유분위기 문제로 떠들었으나 결국 선거는 무사히 끝나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겼다고 한다。고마운 것은 금념에는 일반 민중의 정치적 식견과 수준이 완전히 높아져서 어면 선전이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네의 판단과 자유 의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고마운 것은 기독교측에서 추천한 입후보자를 위하여 교회측에서 남녀노소 교우들이 총 동원하여 열심으로 그 운동에 참가하고 교인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 입후보자를 지지하였다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중이 지지한 그 사람들이 과연 민중의 기대하는 대로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그보다 기독교인 입후보자들이 당선되어 국회에 가서 우리 교우들이 기대한 대로 제대로 기독교정신을 살려 줄터인가 하는것이다。「그는 양심적 인물이다 기독교정신을 국회에 침투시키자」하는 것이 교회측에서 그들을 추천할 때에 열심으로 웨친 말인데、과연 그들이 양심대로 움직이고 기독교정신을 살려둘 터인가。

부디 민중과 동지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말고 양심적으로 움직이고 예수의 정신으로 싸워서 혼란한 나라를 바루잡아 주기를 바란다。

전 찾지 못했어요. 제가 더러운 넘이 아니고 순진했더라면 저는 그들의 허물을 들췄겠지요, 저는 더러운 넘이 되는 대신에 바보를 면했어요. 모ㅡ든 약한 일을 마음대로 하는 이들이 나한테 재판관이 되는 절루 다들 신사숙녀가 되지오. 형국씨! 제가 이 가난과 외로움을 힘차게 극복하면서 마지막 남은 보배를 말지않었더라면 더럽지 않은 여자였대서 저는 대체 어디루 가야할가요? (다시 은근히) 형국씨가 절 사랑하시는건 아냐요. 그렇지만 절 한마리의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예요. 저두 푸른 하늘을 우러러 가슴에 별을 안고 자랐어요. 제가 [illegible] 몸이 더려워지지 아니 였던들 형국씨는 제가 찾아갈 나' 하늘은 아니예요' (히스테릭하게) 그랬읍니다. 저는 형국씨를 피[illegible] 도망가는 거야요. 그랬대서 저는 더욱 더러운 넘일가요? 지금 저의 [illegible]몸은 이 썩은 몸퉁아리를 다시 건[illegible] 하나의 의욕마저도 못가지는 거랍니다.

형국 (흥분을 진정시키고 절망적으로) 혜숙이 그럼 날더러 어째란 거야? 나는 혜숙이의 모든 과거를 용서한다구 했어. 그리구 혜숙이를 행복하게 할수있는 어려길을 [illegible]면에는 생각했어. 그러나 나는 혜숙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illegible]구 아무것두 없어. 단지 어린날의 우리 두사람의 아름다웠던 추억밖에 나는 물른 이[illegible] 혜숙이의 하늘이 가엔 너무나도 이조려정 내딸이 될 어저나가 병신이 됨것처럼 나는 마음으로도 병신이야 그 [illegible]활지만 혜숙이 내 인생체험 같은 체험을 도 혜숙인 몰라. 종하피에 다니다 받구 하나밖에 없는 형이 쌀겨이라는데에 이러나는 반항심은 싸옴이 일어나자 나를 전장으로 알리게 했어. 나는 군 되어 내 총심에 어드 부붙두 넘거루지 않었어 몇번이나 나는 죽업의 고개를 넘나들며 당장 나 내앞에서 싸우면 사이가 장난처럼 빡빡 죽어가는것을 수없이 목도했어. 나는 거기서

원수가 얼마나 많다는 것과 평화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그 모순된 생리를 내 골수에 새겼어 내가 내육신의 일부분을 내어던지고 고향집으로 돌아올제는

그래도 내가슴에는 희망이 찬란했댔어 전선에서 싸우던거처럼 내 집에 돌아와서는 또 다른 싸움을 한다구 내 겨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

詩

祈禱 I

R生

아니옵시다. 다시 주 앞에 엎드려 光明을 부릅니다。
晝日은 아예 오지 않고
까마득한 알길란 발길을 멍구는
주여 이때가 어떤 몸을 滅亡의 末路오리까。

보시옵소서, 뒤돌아 보시옵소서,
눈먼 故鄕을, 歲月을, 모두라를。
생채 고랑에 주락은 하이얀 토끼새끼런듯
이제는 나날이 썩어, 진대놈들이 온몸을 우물거립니다,
十字砲火는 炸裂하고, 억누는 痛哭을 뿌리치고 나선,
젊은 靈魂에 骨灰 내리고, 내리고,
아쓱한 머리를 껴안고 느러졌읍니다。

이때―
놈은 제발앞에 침뱉고 던지인 한주먹의 밥덩이를
줍고,
墮落의 젊은 黑氣에 덤벙이는
제 白骨을 등진 그림자、異端者。
오래 罪惡에 잠겨 낡은 헌뗑이
오히려 惡物에 우물거리는 구더기。

주여 당신은 우리들로 祝福에 넘친 葡萄나무 가지
라 하셨으나、
盛夏 기울인 날에 쭈셔 열릴 열매는
毒身 삼킨 毒蛇를 맺었읍니다。
오는 날에 死亡의 날개를 펴고 子息은
당신을 떠나 空中에 빨건 狂宴을 열것입니다。
永遠히 지나가지 않는 밤이 내려
深海에 산다는 魚族들같이 두눈을 빼고
제 스스로의 肢體를 씹고
瞬間의 生理를 채우는 物介가 될 것입니다。

아니옵시다、다시 주앞에 엎드려 光明을 부릅니다。
뒤바뀌는 季節을 이 肉體에 알알이 느끼듯이
母體에서 두날된 그대로의 형상으로
당신의 뜻을 아프게 알게 하옵소서。
碧空같이 맑은 面鏡을 이 두눈을 위해 주시옵소서。
제 뼛골을 끓어 안기 위한 두팔이 아니라、
당신앞에 敬虔히 드릴 貧한 두팔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榮光의 날을 위해
깨끗이 여인 靈魂을 받는 두발을 주시옵소서。

밤이 올시다。
깨일수 없이 깊이 잠든 衆生이 憎惡의 劍을 갈고
어둠에 삼키인 가슴들이 窓을 닫고 있읍니다。
이때야 눈알 막는 안개 떠밀고
허트러진 맘 주워 모두며 골고다길 찾사오니
아니옵시다。다시 주 앞에 엎드려 光明을 부릅니다。

研削砥石・研磨材料
青砥の石工用
營業品目 各種天然砥石・パルプ用丸砥
油砥石・切斷砥石・鐵砂
高級金剛砂
中央向砥石は神田砥石へ
東京商業砥石特約販賣店

神田砥石工業株式會社

東京千代田區神田神保町二ノ二
電話(33)五〇一四番
振替一九四九二三番

共榮物産株式會社
社長 朴壽虎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神保町一ノ四九

輸出入業
三剛物産株式會社
代表取締役 金炯吉
東京都港區芝西久保巴町三番地
電略 シバミツダイヤ
電話(43) 7543 6853 5200